11 제20114호

# 목포

# 옥암지구 대학부지 4개로 분할 개발 추진

# 목포시 용도변경 중간보고 총 분양금액 1026억 전망

목포시의 마지막 노란자위 땅으로 꼽 히는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계획(용도) 변경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.

대학부지 19만6793㎡(6만여평)을 교육 연구시설용지, 교육·의료 복합용지, 고 등학교 부지, 편익시설 용지 등 크게 4개 로 분할하는 것이 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이다.

구성 비율로는 교육연구시설이 33.5% (6만5891㎡)를 차지하고 편익시설 용지 12.3%(2만4209㎡), 교육의료 복합용지 10.7%(2만1080㎡), 고등학교부지 10.4% (2만441m²) 등의 순이다.

# 4개 분할 개발계획

- 교육연구시설 용지(6만5891㎡)
- 교육의료 복합용지(2만1080m²)
- 고등학교 부지(2만441㎡)
- 편익시설 용지(2만4209㎡)

8일 목포시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용지에 전남도 공무원 교육 원을 유치하고, 편익시설용지에는 수변 공원과 연계한 특화기능을 배치해 카페 거리와 전문 테마형 F&B(Food & Beverage) 등이 조성된다. 또 교육 의료 시설용지에는 병·의원과 학원 등이 들어 서게 된다.

이는 최근 열린 남악신도시(옥암지구

대학부지)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이다.

이번 용역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총 분양금액은 10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됐으며, 투자비를 제외한 개발 이익금 도 1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. 비 용편익 분석(B/C)은 1.19로 나타났다.

하지만 그동안 목포시가 개발 이익금 을 500억~8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 고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장기간 방 치돼온 대학부지 용도 변경에 나섰던 점 과 비교하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.

용역사는 이번 용도변경 안과 관련해 ▲ 인간중심형 보행기능 강화 ▲교육시설과 연계한 편익 시설 배치로 커뮤니티 형성 ▲ 장기간 미개발지인 대학부지의 효율적인

토지이용 가능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. 반면 교육연구시설 유치 불분명 시 장기간 미개 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높고 15m 도로로 인해 남측 수변공원과의 보행 연계가 단절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.

또 교육연구시설, 특화거리 등이 6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스카이 라인이나 조망에는 특별한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.

한편 이날 용역보고에서는 교육의료시 설 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 더 현실적이며 인근에 천혜의 수변공 원이 있는 만큼 가급적 녹도를 없애 도로 를 넓히고,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건 널 수 있도록 곳곳에 지하도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.

/목포=임영춘기자 lyc@

목포시립합창단이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10일 열릴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앞 두고 연습에 한창이다.

# 목포시립합창단 10일 창단 30주년 음악회

#### 정영재 지휘자 취임 첫 무대

깊어가는 가을 끝자락, 아름다운 선율 로 목포시민들의 가슴을 적셔줄 감동의 무대가 마련된다.

창단 30주년을 맞은 목포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0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.

'천상의 하모니'를 자랑하는 시립합창 단이 새 사령탑인 마애스트로 정영재(제2 대 상임지휘자)를 맞아 처음 선보이는 취 임 기념 연주회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.

이번 연주회는 오! 코리아(건, 곤, 감, 리)와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 총 2부로 나 눠 꾸며진다. 건(乾)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창조성이 힘찬 합창과 타악기의 울림이 역동적으로 표현되고, 곤(坤)에

서는 풍요한 삶의 터전과 민족의 숨결을 들려준다. 감(坎)에서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강산과 생명력이, 마지막 곡인 리(離)는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하는 마음이 표현된다.

이날 공연에서는 또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, 국악기, 합창의 절묘한 만남은 물 론 '무용과 풍물패'의 신명나는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는 목포시립교 향악단 반주에 맞춰 Look down, I dreamed a dream, On my own 등 주 옥같은 7곡을 선사한다. 정영재 상임지 휘자는 "깊어가는 가을, 합창을 통해 목 포시민들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소를 제 공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"이라고 말 ./목포=고규석기자 yousou@

# 자정에 떠나는 낭만 제주여행

## 씨스타크루즈호 운항 시작 출항 기념 운임 50% 할인

목포~제주간 자정에 떠나는 바다 여 행길이 열렸다.

씨월드고속훼리(주)(대표이사 회장 이혁영)는 "지난 7일부터 씨스타크루즈 호 목포~제주간 야간 자정 출항이 시작 돼 이용객 편의와 밤바다의 야경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"고 8일 밝혔다.

'자정에 떠나는 제주 여행'이란 타이 틀로 목포 출항 밤 12시 30분, 제주출항 오후 1시40분 운항하며, 밤바다의 낭만

과 무박 제주여행이라는 색다른 패턴의 제주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씨월드 고속훼리측의 설명이다.

씨스타크루즈호는 일정상 일찍 도착 한 승객을 위해 밤 10시부터 승선이 가 능하도록 했으며, 선내 편의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또 자정 출항 기 념 이벤트로 올 연말까지(12월25일~27 일 제외) 3등 객실을 대상으로 여객운임 50% 할인 등 '통큰 이벤트'도 진행한다.

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은 "연중 무휴 운항과 상시 예약 가능 등으로 이 용자 중심의 여객, 물류 연계 서비스 제 공 및 편의 서비스 강화로 제주 관광 활

## 씨월드고속훼리의 오전·오후·자정에 떠나는 제주여행



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" 고 말했다.

한편 씨스타크루즈호는 국제톤수 2만 4000톤급 길이 185m, 너비 26.8m, 속력 23노트로 여객정원 1935명과 차량 520 대를 수송할 수 있다. 운항시간 및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씨월드고속훼리(주) 홈페이지(www.seaferry.co.kr)와 대

표전화(1577-3567)로 확인 가능하다. /목포=김준석기자 kjs0533@

# 목포시 문화재 유지·관리 총력전

### 양동교회 지붕 교체・천주교 구 교구청 보수정비 추진

목포시가 문화재 정비를 강화하는 등 문 화재 유지·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.

목포시는 8일 "역사유적, 문화자산, 관 광시설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양동교회 지붕 보수 공사와 목포 천 주교 구 교구청 보수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현재 목포시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27 점(국가 4, 지방 13, 등록 10)과 시 문화유 산 24점 등 총 51점이다.

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양동에 위치한 양동교회(등록문화재 제 114호)의 노후된 지붕을 교체키로 하고 지난 9월 문화

재청 승인을 마쳤다. 시는 함석으로 된 지붕 골을 해제하고 지붕널을 교체한 이후 아스팔 트 방수 처리해 단열재를 설치할 계획이다.

양동교회는 지난 1897년 3월 미국 남장 로교 선교부 소속 배유지 목사와 변장연 조 사가 2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목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.

현재 건물은 지난 1910년 당시 7000원 을 들여 새롭게 건축한 것으로, 건물 좌측 측면 상부 아치에 건립 시 음각한 '大韓隆 熙四年'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.

특히 양동교회는 광주 양림교회와 그 궤 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. 양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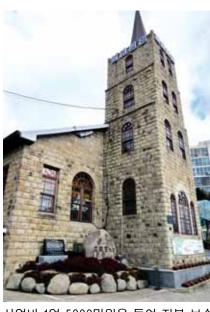
교회 선교사가 광주로 건너가 양림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.

시는 또 산정동에 위치한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(등록문화재 제513호) 원형복원 을 위한 보수 공사에 착수했다. 시는 사업비 12억 원(국비 6억, 도·시비

6억)을 투입해 구 교구청 건물 내·외부를 보수하는 한편 옛 골롬반 병원 기숙사로 사용될 당시 설치했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원형 복원공사를 내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. 구 교구청 복원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 건물은 가톨릭 성지화 사업과 연 계한 역사·문화관으로 활용된다.

박홍률 목포시장은 "관내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부터 시행할 예정"이라면서 "문화재 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다"고 밝혔다.

/목포=고규석 기자 yousou@



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붕 보수 공사중인 양동교회 전경

#### 목포대 내년 '아태 선박해양구조회의' 주관대학 지정

목포대학교가 2016년 개최되는 30주 년 기념 특별 국제학술대회인 '아시아 태 평양 선박해양구조회의(이하 TEAM, Asian-Pacific Technical Exchange and Advisory Meeting on Marine Structures)' 주관대학으로 지정됐다.

8일 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29차 TEAM 국제조직위원회에서 2016년 TEAM 30주년 기념 특별 국제학술대회 를 한국의 목포대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(대불국가산단 내)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했다. 또 목포대 송하철 조선공학과 교수 를 국제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.

TEAM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 을 중심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선진 기술 을 보유한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들이 참 여해 조선해양 구조공학과 설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동향을 발표하는 국제 적 학술교류의 장이다.

TEAM의 국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하철 교수는 "오랜 전통의 TEAM 국제학술대회 30주년 기념 특별 행사를 목포대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"면서 "전남지역 조선해양 산업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/목포=김준석기자 kjs0533@

### 목포시 '사랑의 밥차' 국민통합 최우수 기관 표창

영하고 있는 '사랑의 밥 차'가 한 '2015 국민통합 우수 사례'로 선정돼 최우수 기 관 표창을 받게 됐다.

목포시는 8일 "목포시 등 20개 지자체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통합 우 수 사례로 선정돼 9일 대전광역시청 대강 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"고 밝혔다. 특히

목포시가 목포시복지재단에 위탁 운 20개 지자체 가운데 목포시는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아 차연희 목포시사회복지과장 이 사랑의 밥 차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.

> 지난 2013년 6월 첫 가동된 사랑의 밥 차는 지금까지 총 90여회를 운영해 5만 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했고,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태 경로 효친을 실천했다. /목포=임영춘기자 lyc@

